

알맹이 빠진 'F1특별법안'

J프로젝트 핵심사업 '내국인 카지노' 제외

전남도 "반대여론 부담...원안서 삭제"

전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F1특별법안'에서 최대 현안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J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내국인 카지노 허가 문제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정책실에 제출한 '포틀랜드(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대회 관련시설사업, 제3장 포틀랜드대회에 대한 지원, 제4장 경차(競車) 등 모두 8장으로 이뤄져 있으나 핵심사업인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제외되어 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은 기본적인 재산상 보장으로 투자유치 기업들

의 '안전관' 구실을 할 수 있고,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여 J프로젝트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개설이말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F1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카지노 개설 허가를 얻었다고 밝혀왔으나 실제 특별법안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F1자동차대회는 물론 J프로젝트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여겨져 왔던 '내국인 출입 카지노'문제가 특별법안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카지노 개설 백지화와 더불어 J프로젝트 자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카지노 개설을

포기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카지노의 사행성을 문제삼아 일부 시·도민과 국회의원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법안에 거론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J프로젝트 최대 핵심사업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고민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특별법안에서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또다시 카지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J프로젝트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50만 시·도민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특별법(안)에서도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

과 거부감에 밀려 관철하지 못한 '카지노 허가'문제를 또 다른 형태로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최악의 경우 J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도 물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특히 'F1특별법'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5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오면서도 '특별법안에는 경차만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며, 장기적인 과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고민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한편, F1특별법안과 관련 전남도는 당초 4당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했으나 민주노동당이 환경오염과 경차(競車), 카지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발의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에는 이 특별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일정 등의 영향으로 입법작업이 지연되면서 9월 정기국회 때나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 다.

/홍행기자 redplane@

"태풍 '에위니아' 전남 상륙"

광주·전남 위기경보 발령...오늘 직접 영향권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광주·전남을 내습할 것으로 보인다. '중형' 태풍인 '에위니아'는 10일 오후 3시 목포 서북서 약 110km 부근 흑산도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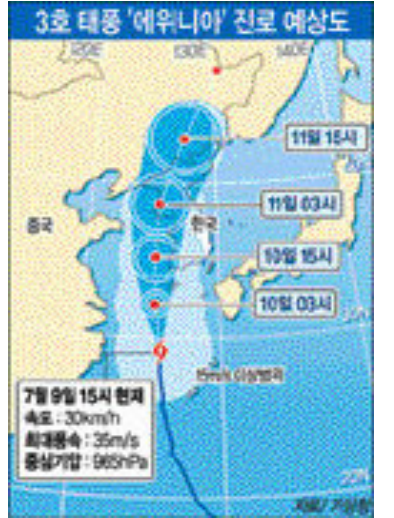
시속 30km로 북상 중인 태풍의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hPa), 강풍반경은 350km에 달한다. 특히 중심 부근에는 초속 35m(시속 123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8~12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은 10일 새벽부터 최고 200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직접

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며, 태풍 '눈'의 오른쪽(위험 반원)에 들게 돼 농·어촌에 강풍·집수·해일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앞서 9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제주도에 태풍주의보, 서해 남부 전 해상과 남해 서부·동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대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10일 오전에는 광주·전남과 서해남부·남해서부 모든 바다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태풍은 11일 새벽 백령도 북동쪽 약 150km 부근 육상을 지나 12일 새벽



쯤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가 중국 베이징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그러나 "서해의 해수 온도가 21도로 낮은 데다 상공에는 서풍이 불고 있어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강도와 진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낮 12시를 기해 전국 일원에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했다. 주의는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 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된다.

/이승배기자 lsb54@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서해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남해안에서 조업중이던 5천800여척의 어선이 9일 목포항에 긴급 대피해 있다. /목포=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힐 "6자회담 열리면 北-美 양자대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9일 "장관급회담에서 미사일 및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과 국제사회 및 미국의 반응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고 힐 차관보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고 양창석 통일부 공보관이 전했다. <관련기사 3면>

또 힐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며 북한과 양자협의를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힐 차관보의 지속적 노력을 지지하고 평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힐 차관보는 아울러 현 시점에서 국면 타개를 위해 6자회담이 중요하며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양 공보관은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알렉산더 버

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함께 했다. 힐 차관보는 면담 뒤 기자들에게 "한미는 분명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를 갖고 반응을 보였다"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3자 간에 조율해서 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도 대북지원을 검토해 유보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최진만기자 man21@

韓-美 FTA, 오늘부터 2차 분협상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분협상이 10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준홍 수석대표 등 270여명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75명이 나선다. <관련기사 11면>

양국은 지난 6월 1차 분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분야별 양허(개방 허용) 여부 및 관세 감축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이종대기자 jtle@

후원학원 장학55% 학사반 운영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상담전화 062-971-0114 ▶ T.062-970-5000-5

새로운 담겨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상담전화 062-971-0114 ▶ T.062-970-5000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韓國물가정보
 TEL.1977-7900 FAX.1977-4802

本社辭令

- ▲ 金東永
논설실장
 - ▲ 申港樂
편집국장
 - ▲ 張駿浩
광고국장
 - ▲ 丁在炫
논설위원(부국장)
 - ▲ 曹庚完
편집국 부국장
 - ▲ 金載烈
편집국 사회2부장
- (7월 10일자)

민족의 숨겨진 귀부인도 인도의 건강을 위하여...
신풍제약주식회사

버미플루 1알로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황문주위의 가려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 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정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정